

# 巴金(빠진)의 最近 文學活動\*\*

李 炳 漢\*

## 1. 巴金の 筆名과 作品

巴金은 今年 77세의 中共 元老級 小說作家이며, 현재 「中國作家協會」의 代理主席을 맡고 있다.

1904년 成都의 大官僚地主의 家정에 태어난 巴金의 本名은 李堯棠이고 字가 芾甘이며, 巴金은 그의 筆名이다. 혹 芾甘을 本名으로 적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잘못이다. 巴金의 本名과 字는 <詩經> 중의 國風 召南에 있는 <甘棠>편과 관련이 있다. <甘棠>편은 共三章으로 每章 句首에 “蔽芾甘棠” 一句를 疊用하고 있는데, 巴金의 本名과 字 가운데 세 글자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堯」자는 行렬자로서, 큰 형 이름이 堯杖이고, 셋째 형 이름이 堯林이다.

筆名은 1936년 출판된 <現代中國作家筆名錄>에 보면 李芾甘 條下에 王文慧, 比金, 巴比, 余一, 余三, 余五, 余七, 歐陽鏡蓉 등 9개가 수록이 되어 있으며, 1959년 文學研究所圖書室에서 編印한 <中國現代作家筆名錄>에는 「巴金」을 추가하여 10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80년 출간된 <中國文學家辭典>(現代第一分冊)에는 「黃樹輝」가 추가되어 11개가 수록되어 있다. 최근 어느 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巴金은 이밖에도 一切, 馬琴, 竟容, 李冷 등의 筆名이 있다 한다. 이상 15개의 筆名 가운데 「巴金」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의 著述에는 한결같이 이 筆名이 사용되고 있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中文學)

\*\* 이 글은 1981년 10월 16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集談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巴金은 그의 처녀작 장편 소설 〈滅亡〉이 1929년 上海 開明書店에서 간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50 여 년 동안 作品活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50년의 세월이 그에게 한결같지만은 않았다. 1980년 4월 日本 京都에서 〈我和文學〉이란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 巴金은 그의 50년 作家生活을 ① 初期 20년, ② 新中國 成立後 20년, ③ 文化大革命期 10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巴金 자신의 回顧에 의하면 1929년부터 1948년까지의 20년 사이에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글을 썼으며, 마치 무엇인가가 쉬지 않고 그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 기간에 생산되었던 작품들이 후에 나온 〈巴金文集〉 14권 속에 모두 수록되었다. 〈巴金文集〉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여에 걸쳐 人民文學出版社에서 간행하였는데, 그 속에는 〈霧〉, 〈雨〉, 〈電〉을 포함한 愛情三部曲과 〈家〉, 〈春〉, 〈秋〉를 포함한 激流三部曲 그리고 〈火〉 1, 2, 3부 등 장편 소설과 〈憩園〉, 〈寒夜〉 등의 중편 소설 20편, 단편 소설 73편, 산문집 16편, 기타 번역 50 여 종이 수록되어 있다.

中共政權 수립 이후 文化大革命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20년 동안에 걸친 作品活動에 대하여 巴金은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즉 『새 중국이 성립되자 모든 것이 변하였다. 나도 지난날 암흑면 말을 묘사하던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을 써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길이 파고 들 수가 없어서 써놓은 작품에 대하여 스스로가 불만을 느낄 정도였으며, 또 여러가지 사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작품을 쓸 기회도 더욱 적었다.』

文化大革命 기간 巴金은 姚文元, 또 王洪文, 張春橋 등 이른바 四人幫 괴수들에 의하여 「大文霸」, 「牛鬼蛇神」, 「賣國賊」, 「反革命分子」로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作家로서의 基本權 다져 박탈 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 巴金은 매일 한결같은 내용의 自白書, 反省文을 써야만 하였다.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空白으로 보내고 난 巴金은 이제 八旬을 바라보는 老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巴金은 앞으로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

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였다. 1978년 말에 巴金이 「五年 著述計劃」을 공개하게 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巴金 자신 그의 이러한 계획 공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巴金은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불사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 2. 巴金과 無政府主義

1920년 成都의 外語專門學校에 입학한 巴金은 외국어를 통하여 직접 외국의 새로운 文物과 思想에 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재학중에는 진보적 내용을 담은 간행물 〈半月社〉의 활용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3년에는 셋째 형과 함께 고향을 떠나 上海를 거쳐 南京에 도착하여 東南大學 부속 중학교의 강습반에 입학하였다. 南京에서 공부하는 동안 巴金은 五·三〇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巴金이 新式教育을 외국어로부터 받기 시작하였고, 그가 한때 無政府主義者들의 著述을 탐독하였으며, 또 “에스페란토”(世界語)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30년대에 이미 그를 無政府主義者라고 평하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는 그의 筆名 “巴金”이 러시아의 無政府主義者 “빠구닌”과 “크로프토키”의 첫 음과 끝음을 따 온 것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이나 풀이는 사실상 근거가 별로 없다.

無政府主義와 관련된 이러한 世評은 50년대 말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크게 그를 괴롭혔다. 「四人幫」의 한 사람이고, 당시 魯迅研究 전문가로 자처하던 姚文元이 먼저 문제를 들고 나왔다. 姚文元은 巴金을 無政府主義者로 낙인을 찍고, 巴金의 작품이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사상면에서 무서운 腐蝕作用과 破壞作用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巴金은 1962년 5월에 소집되었던 第二次 文人代表者會議 석상에서 「作家

의 용기와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면서 姚文元이 근거 없이 낭설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되게 하고 있다고 면박을 가하였다. 姚文元과의 이러한 대립이 禍根이 되어 1946년 中共政權 수립 이전까지의 20년간에 걸친 그의 全作品이 總批判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 그의 작품이 悲觀消沉의 情緒를 퍼뜨리고 젊은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왔다고 공격을 받았고,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편 소설 〈家〉는 個人主義, 無政府主義, 愛情主義의 혼합체라고 공격을 받았다. 「文革期間」중 巴金은 無政府主義者라는 누명에다 다시 “철저한 地主階級의 대변인”, “赤裸裸한 反共 늙은이”라는 모자까지 들러졌으며 이러한 죄명은 마침내 巴金을 再起不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巴金 자신 그의 장편소설 〈滅亡〉중의 주인공 杜大心の 사상이 「아나키즘」, 「니힐리즘」에 접근되어 있으며, 과거 어느 시기에 그 자신의 사상이 확실히 그러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79년 5월에 그가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無政府主義의 그에 대한 영향을 묻자 그는.. “내가 젊었을 때 無政府主義의 영향을 받았기는 하지만, 당시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愛國主義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 巴金은 또 그의 筆名에 대하여도 「巴」자는 그가 프랑스에 있을 때 사귀던 巴恩波라는 이름을 가졌던 친구가 연상되어 취한 것이고, 「金」자는 그저 筆劃이 간단하고 쓰기가 쉬워서 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풀이한 바 있다.

### 3. 巴金의 文壇活動

國難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救國의 念願, 그리고 西方世界에 대한 憧憬을 안고 巴金은 自費로 1927년 1월 프랑스의 말세이유를 거쳐 빠리에 도착하였다. 1928년 말까지의 프랑스 유학 기간 중 巴金은 크로포토킹, 몽테스큐, 루소, 헬젠 등의 저서를 통하여 민주 혁명 사상을 받아들였

고, 위고, 조라 그리고 로망·로랑 등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문학 수련을 쌓기도 하였다. 巴金의 처녀작 장편 소설 〈滅亡〉은 이 무렵 탈고했던 것을 후에 上海의 開明書局에서 출판한 것이다.

1928년말 上海로 돌아온 巴金은 그때부터 文壇生活을 시작하였으며, 1931년 9.18 사변이 터지자 救亡 운동에 앞장섰고, 1933년 이후에는 魯迅과도 交分이 있었다. 1937년 中日 전쟁이 터지자 또 抗戰의 대열에 끼어 붓으로 총을 대신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6월에 소집된 「中華全國文學藝術工作者大會」에서는 「中華全國文學藝術界聯合會全國委員會委員」, 「中華全國文學工作者協會全國委員會委員兼常務委員」으로 선출되었다.

1947년 8월에는 臺灣을 訪問한 일도 있었으며, 1950년 이후에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 2 차 世界平和守護大會에도 참석하였고, 한국동란 때에는 두 번이나 전선을 방문하였으며, 소련을 다섯 번이나 방문하였다. 그리고 文化大革命 이전까지 「中國文藝工作者聯合會 副主席」, 「中國作家協會 副主席」, 「作協 上海分會 主席」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文革 기간 중에는 走資派 反黨分子로 낙인이 찍혀 모든 公權이 박탈되고 일체의 사회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逆境 속에서 그는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게 되었다.

四人幫이 무너지자 巴金은 곧 그의 모든 公權을 회복하였고, 다시 文壇活動을 시작하였다. 1978년에 소집된 「第五次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79년 4월에는 50년 만에 다시 巴黎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1980년 4월에는 日本 廣島와 京都 등지를 방문하고 강연회도 가진 바 있다.

1977년 이후 프랑스의 일부 漢學者들은 끈질기게 巴金을 노벨 文學賞 受賞候補로 제청하여 왔으며, 巴金 자신 이 문제에 대하여 “기위 印度나 日本의 작가도 노벨 文學賞을 받은 터에 中國人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없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실지로 1979년 4월 巴金이 약 3 주간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노벨 문학상과 관련된 풍문이 파다하게 번지기도 하였었다. 다만 당시의 중국내의 정치 정세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뒤로 미뤘다는 소문이 있었다.

巴金은 또 1980년 가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65차 국제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巴金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가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아니면 1921년부터의 일이라 하니 巴金과 에스페란토의 관계는 그의 문단 활동 경력보다도 긴 세월에 걸친다.

1981년 4월 20일에는 「中國作家協會代表者擴大會議」에서 中國作家協會主席團代理主席으로 선출되어 그해 3월 27일 茅盾이 죽은 뒤로 空席으로 있던 作協主席의 책임을 인계 받기도 하였다. 巴金은 그때까지 第一副主席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主席의 권한을 대리하여 오고 있었다. 巴金이 代理主席으로 선출된 다음날 中國作協擴大會議에서는 「中國現代文學館」의 건립을 결의하였고, 巴金은 그 基金으로 자신의 원고료 수입 중에서 15만원(人民幣)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中國作協에서는 前任主席 茅盾의 遺囑에 따라 茅盾이 寄託한 원고료 25만원(人民幣)을 基金으로 「茅盾文學獎金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를 主席團 전체 성원 12명이 운영해 나가기로 의결한 바 있다.

#### 4. 巴金의 五年著述計劃

1978년 12월, 巴金은 그의 作家로서의 一生을 마무리 짓기 위한 「著述五年計劃」을 발표하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5년동안 매년 1권씩의 隨想錄과 1권씩의 〈헬젠 회고록〉 번역, 그리고 1권의 창작 회고록과 2부의 장편 소설 등 도합 13권의 著述을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계획은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그중 매년 1권씩 내기로 한 〈隨想錄〉도 第一集(1979), 第二集(1980)이 이미 香港 三聯書店에서 간행된 바 있다. 巴金은 〈隨想錄〉의 總序에서... 이제 그의 나이가 70을 넘어서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四人幫 橫行時에 빼앗겼던 10년 세월을 되찾아야 겠으며, 조그마한 것일망정 우선 실질적이고 하기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갈 생각이라고 〈隨想錄〉 저술의 동기와 방법을 밝히고 있다. 四人幫이 무너진 뒤부터 巴金은 香港에서 발행되는 〈大公報〉와 〈文匯報〉에 각각 〈隨想錄〉과 〈創作回憶錄〉의 컬럼을 쓰고 있다. 〈隨想錄〉 1,2집은 1979년, 1980년 2년동안 발표되었던 것 중에서 각 집에 30 편씩 묶어서 單行本으로 낸 것이다.

巴金이 構想하고 있는 2부의 장편 소설도 이미 그 제목까지 〈一雙美麗的眼睛〉, 〈撲不滅的火焰〉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중 〈一雙美麗的眼睛〉은 文革期間에 어느 老年 知識分子가 겪은 일을 소재로 하여 집필 중이며 1981년 말까지는 탈고 예정으로 있다. 巴金은 그의 〈隨想錄〉 제 1집에 실려 있는 〈懷念蕭珊〉이란 글에서 그의 아내 蕭珊의 臨終時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녀의 눈이 내내 크고, 아름답고,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하여 〈一雙美麗的眼睛〉은 다분히 巴金과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自傳的인 소설이 될 것이라고 추리하는 사람도 있다.

巴金이 과연 그가 세운 「著述五年計劃」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巴金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斷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巴金은 이미 그가 세운 계획의 5분의 3을 달성해 놓고 있다. 八旬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 巴金의 作家로서의 情熱과 意慾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